

사육면적 수당 0.075m² 조기 시행, 신규농가 참여 제한으로 양계업 안정화 유도해야



▲ 천안채란지부를 이끌고 있는 김홍선 지부장

천안채란지부(지부장 김홍선) 월례회의가 지난 13일 대전충남양계농협 2층 사무실에 마련된 지부 사무실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천안채란지부는 그동안 사용하던 상리동 사무실을 원성동 한국양계농협으로 자리를 옮겨 농가들의 접근성을 높여주었다. 금년부터 신임 지부장을 맡은 김홍선 지부장은 “최근 양계경기가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며 산란업계에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중요한 시기에 지부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회원들에게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제는 단연 사육수수 조절로 채란업 안정화를 찾자는 것이 주로 논의되었다. 또한 산란일자 표기, 선별포장업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 등에 대한 문제도 다뤄지는 등 발전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 천안채란지부는 지부장을 중심으로 채란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천안지부가 없었지만, 유진 초대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으면서 천안지부가 탄생하였다. 당시 대전충남양계조합 안병철 조합장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상리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시 천안지역에는 73 농가가 있었으며 이 중 70 농가가 회원으로 가입할 정도로 지부 활동이 활발했다. 천안도 사육농가수가 줄면서 현재는 40여 농가에서 약 250만수 규모의 닭을 사육하고 있다. 또한 2세 경영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천안지부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소독제, 백신 등)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금년에도 전반기에 수령한 관납백신(AI 혼합, 뉴모, 코라이자)은 지난해

임원명단

지부장 : 김흥선	부지부장 : 장현
사무국장 : 곽호중	이사 : 황영도, 김용석
감사 : 이인석, 김준석	고문 : 정종필

미수령 농가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농가에는 균등하게 배분을 마쳤으며, 하반기 추경예산에 백신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지부장을 중심으로 회원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곽호중 사무국장은 비싸게 사용되고 있는 난좌비용을 줄이고 지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인이 해외(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수입되는 난좌를 농장에 저렴하게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발전기금을 통해 지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난좌는 신청자에 한해 5월 선적분부터 보급될 계획이며 이익금은 농가로 환원계획도 밝혔다.



▲ 매월 월례회의에는 지부 사무실이 토론장으로 바뀐다.



▲ 매년 계란 소비 홍보 행사를 통해 계란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자금 상황이 좋아지면서 천안채란지부는 앞으로 월 회비를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이기로 하였으며, 내년에 형편이 더 좋아지면 1만원까지 내릴 계획도 갖고 있다. 회원들이 부담 없이 협회를 찾아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더 큰 단합을 기하기 위함이다.

천안채란지부는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계란 시식 행사를 실시하면서 계란의 우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자조금 거출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 지속적인 계란 우수성 홍보 활동의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농가들의 자조금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란업 경기가 최악을 달리다 보니 양계협회 중앙회의 역할론에 대한 현안문제도 거론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타 지부들과 연계하여 신중히 접근하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산란업계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양계협회의 역할을 기대했다.

회원들의 불만은 지속되는 불경기 속에 정부에서 옥죄고 있는 정책들이 농가들을 속박하고 있으며 이를 협회 차원에서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현재 과잉생산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군사육농가들을 포함하여 함께 수수조절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신규참여농가 제한 및 사육면적 수당 0.075㎡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의견을 모았다.

천안채란지부는 6월 10일(월) 오후 4시 웨딩베리컨벤션에서는 이·취임식 겸 하계야유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체 가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연중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모을 계획이다.



취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